

농인의 농정체성이 농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수어인식의 매개효과

박동진¹, 남기현^{2*}

¹경기복지재단 복지협력팀, ²나사렛대학교 수어통역교육전공

The Effects of Deaf Identity on Deaf Culture Perception of Deaf People: Mediating Effects of Sign Language Perception

Dong-Jin Park¹, Ki-Hyun Nam^{2*}

¹Welfare Cooperation Team, Gyeonggi Welfare Foundation

²Department of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 Education, Korea Nazaren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농인의 농정체성과 농문화 인식의 관계에서 수어인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2020년도 한국수어 활용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몰입정체성, 이중문화 정체성은 농문화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몰입정체성과 이중문화 정체성, 청인중심 정체성은 수어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몰입정체성과 이중문화 정체성이 농문화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이들 관계를 수어인식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농인의 농정체성, 농문화 인식, 그리고 수어인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가 가진 함의 및 한계점,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sign language percep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af identity and the deaf culture perception of deaf people.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2020 Korean Sign Language Utilization Survey' provid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were us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mmersion identity and bicultural identity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deaf culture percep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immersion identity, bicultural identity, and hearing ident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ign language perception. Third, it was found that sign language perception partially mediates these relationships in the process where immersion identity and bicultural identit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af culture percep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ctive support measures for the deaf identity, deaf culture perception, and sign language perception of deaf people were discussed, an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presented.

Keywords : Deaf, Deaf People, Deaf Identity, Deaf Culture, Sign Language, Mediating Effect

1. 서론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라는 지

위를 갖게 되었으며, 한국의 유일한 공용어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한국수화언어법」에서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로 규정되었으며[1], 이를 통해 그 동안 언

*Corresponding Author : Ki-Hyun Nam(Korea Nazarene Univ.)

email: classifier@kornu.ac.kr

Received June 10, 2022

Accepted September 2, 2022

Revised July 21, 2022

Published September 30, 2022

어로서 인정받지 못하였던 수어가 법적으로 언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이는 농인이 사용하는 수어가 단순한 손짓으로 표현되는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고유한 형식을 갖춘 언어로서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욱이 이 때 주로 농인 공동체 내에서 사용되었던 “농인(Deaf Person)”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규정된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인”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농문화(Deaf Culture)는 청인(Hearing people) 문화와는 다른 농인들이 갖는 독특한 문화를 말하며,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을 중심으로 결집된 농인 공동체에서 생성되며, 계승·발전하는 문화이다. Padden & Humphries[2]은 농문화가 청인문화 아래에 속하는 하위문화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문화로 보았다.

오늘 날에는 장애에 대해 개인의 손상이나 결함 중심으로 보는 의학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성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장애 패러다임 전환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3,4].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과거에는 청각의 결손에 집중하여 청각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겪게 되는 제한에 초점을 두는 관점에서 청각의 결손을 갖고 있지만, 수어라고 하는 고유의 언어를 갖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고유한 문화를 공유한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라고 보는 관점에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5,6]. 이러한 맥락에서 ‘농인’이라는 용어도 이해해볼 수 있는데, 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가 나타내는 개인의 손상이나 결함 중심 표현을 거부하고, 농인이라는 용어를 통해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농인으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7].

본래 청각의 손상과 결함을 나타내는 농(Deafness)은 농인 공동체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농인들은 스스로에 대해 주류사회 속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일 뿐 자신들의 어떠한 장애 또는 어떠한 무능력을 가졌다고 판정되기를 거부하기도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8]. 이에 따라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 중에는 자신들에 대해 장애인이라는 인식보다는 소수민족 또는 농문화권의 인종이라는 자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7].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인이 자신을 농인 공동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9]. 이는 농인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하는 농정체성(Deaf Identity)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농인들 중 상당수가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농인 공동체에 소속되지는 않지만, 이들은 농학

교에서 처음으로 자신과 같은 처지의 동료와 만나 강한 결속감을 느끼며, 그 이후의 삶은 농인 공동체에 소속되어 수어를 모국어로 인정하고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는 2차 언어로 이해하여, 농문화라고 하는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10].

이에 따라 농인은 수어를 사용하는 경우, 농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농정체성이 형성되며, 농인 공동체 내에서의 농문화 공유 등으로 인해 농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11,12]. 이와 반대로 미숙한 수어능력 등 의사소통의 한계가 있는 경우에 청각장애인의 사회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3]. 언어는 인간의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자, 타인과의 만남을 위한 매개체이며,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조정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에 따라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사회적 관계형성의 기초가 되며, 소통의 형태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언어는 하나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기도 한다[14]. 이러한 맥락에서 농인에게 있어 수어사용은 농인 공동체에서의 소속감과 개인정체성 형성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9,15].

Rothman[5]은 농인이 자신과 같은 농인과 농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농정체성을 가진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제약이 많은 장애를 갖고 살아가면서도 농인 개인의 긍정적인 인생경험에 필요한 역량강화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농정체성의 발달은 농인 개인에게나 사회적으로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Glickman[16]은 Sue & Sue[17]의 Minority Identity Development 이론을 참고하여 농정체성 발달(Deaf Identity Development) 이론을 만들었다. 농정체성 이론은 농인이 농문화와 농인 공동체에 대하여 어떻게 동일시를 하는지 혹은 하지 않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개념화하고 정의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16]. 이 이론에서는 농정체성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청인중심 정체성(hearing identity), 몰입정체성(immersion identity), 주변정체성(marginal identity), 이중문화 정체성(bicultural identity)과 같은 네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를 통해 농인이 농인 공동체와 농문화에 대해 어떻게 동일시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16]. 청인중심정체성은 농인은 청인에 비해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이해하며, 이에 반해 몰입정체성은 농인을 중심으로 인식하며, 청인은 옳지 않다고 이해한다. 주변정체성은 농인 공동체와 청인 공동체 중 어디에도 명확히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부적응하는 경향을 갖고 있고, 이중문화정체성은 농인 공동체와 청인 공동체 모두를 존중하고, 각각의 문

화를 모두 수용하려는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농인이 어떠한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는지에 따라 수어와 농문화에 대한 인식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sher[18]에 따르면 주변정체성이 매우 부정적인 정체성으로 인식되며, 이중문화 정체성이 가장 긍정적이며, 이상적인 농정체성으로 인식된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을 통해 농정체성과 농문화 인식, 수어인식 간의 관계가 매우 상호 유의할 것으로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다. 특히 수어인식이 농정체성에 따른 농문화 인식에 있어 중요한 매개변인일 것으로 추론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농인의 농정체성이 수어인식을 거쳐 농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을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농인 대상의 농정체성 및 농문화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인의 농정체성은 농문화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농인의 농정체성은 수어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농인의 수어인식은 농문화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농인의 농정체성이 농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어인식의 매개효과는 유의한가?이며,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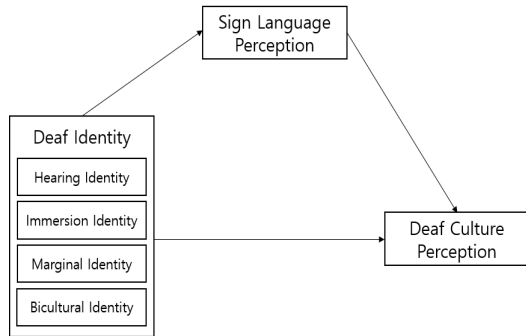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립국어원에서 공개한 ‘2020년 한국수어 활용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020년 한국수어 활용 조사’는 「한국수어언어법」 제9조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조사이다. 이 조사는 한국수어의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농문화를 형성하는 언어·행동·가치관·신념 등 농인의 구체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농문화의 계승 발전과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향한 수어활용의 저변을 확대해나가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된 것이다[19]. ‘2020년 한국수어 활용조사’는 2020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법정장애유형 중 청각장애(심한장애)에 해당하는 20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자 수는 총 539명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287명(53.2%), 여자 252명(46.8%)이었으며, 거주지역은 대도시 204명(37.8%), 중소도시 176명(32.7%), 농어촌 159명(2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19-29세 19명(3.6%), 30대 24명(4.4%), 40대 39명(7.3%), 50대 76명(14.1%), 60대 이상 375명(69.6%)이었고, 최종학력은 무학 121명(22.4%), 초등학교 149명(27.7%), 중학교 112명(20.8%), 고등학교 107명(19.9%), 대학교 졸업 이상 49명(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발생시기는 선천적 98명(18.1%), 후천적 43명(8.9%), 모름 43명(8.0%), 이었으며,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방법은 수어 292명(54.2%), 수어 이외 247명(45.8%)인 것으로 나타났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19]에서 공개한 ‘2020년 한국수어 활용 조사’에서 사용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1 농정체성

농정체성은 국립국어원[19]에서 사용한 총 12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농정체성 측정문항은 청인중심 정체성, 몰입정체성, 주변정체성, 이중문화 정체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청인중심 정체성은 “농교육의 초점은 농 아동에게 한국어 말과 구화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농인에게 가장 좋은 의사소통 방법은 한국어 말과 구화법이다”, “한국수어는 한국어에 기초해야 한다”로 측정하였고, 몰입정체성은 “농인은 수어를 사용해야 한다”, “농인만이 농 아동을 가르쳐야 한다”, “농인은 농인들과만 교류해야 한다”로 측정하였다. 또한 주변 정체성은 “나는 다른 농인들을 좋아하지만 가끔 다른 농인들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있다”, “나는 농인이 수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 피한다”, “나는 청인, 농인 누구와도 잘 어울리지 못한다”로 측정하였고, 이중문화 정체성은 “한국수어와 한국어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 다른 언어이다”, “나는 청인들이 농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기를 원한다”, “나는 농인과 청인에게 모두 편안함을 느낀다”로 측정하였으며, 이들 문항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정체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918로 나타났으며, 청인증심 정체성 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864, 몰입 정체성 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782, 주변정체성 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814, 이중문화 정체성 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827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2.2 농문화 인식

농문화 인식은 국립국어원[19]에서 사용한 “농인은 자기소개를 비교적 상세히 한다”, “농인은 헤어질 때 긴 작별인사를 한다”, “농인은 자리를 비울 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목적지를 알린다”, “농인은 대체로 직설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 “농인은 농공동체에 활발히 참여한다”, “농인은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 “농인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볼 수 있는 사람이다”와 같은 7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농문화 인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47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2.3 수어인식

수어인식은 국립국어원[19]에서 사용한 “한국수어는 뜻이 정확하다”, “한국수어는 품위가 있다”, “한국수어는 아름답다”, “한국수어는 배우기 쉽다”, “한국수어는 논리적이다”, “한국수어는 편안하다”와 같은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동의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약간 동의한다, 5=전적으로 동의한다)로 측정하였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의미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61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3 자료분석방법

연구대상 자료에 대해 SPSS 2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각 변수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둘째, Cronbach's alpha 계수를 살펴봄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농인의 농정체성과 농문화 인식 관계에서 수어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7.0을 활용하여 Baron & Kenny[20]의 분석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방법으로 Sobel test[21]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수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의 점수를 살펴본 결과, 측정변수의 왜도의 절대값이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10을 초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22].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DI				DCP	SLP
	HI	II	MI	BI		
N	539	539	539	539	539	539
Mean	8.98	9.99	7.57	12.18	27.14	23.83
SD	4.43	4.15	4.34	3.61	9.38	8.15
Skewness	2.04	2.01	2.67	1.66	2.05	1.47
SE	.11	.11	.11	.11	.11	.11
Kurtosis	6.35	6.61	9.57	6.64	6.65	4.57
SE	.21	.21	.21	.21	.21	.21

DI: Deaf Identity, DCP: Deaf Culture Perception, SLP: Sign Language Perception, HI: Hearing Identity, II: Immersion Identity, MI: Marginal Identity, BI: Bicultural Identity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DI				DCP	SLP
		HI	II	MI	BI		
DI	HI	1					
	II	.58***	1				
	MI	.69***	.66***	1			
	BI	.56***	.71***	.52***	1		
DCP		.52***	.68***	.51***	.78***	1	
SLP		.41***	.68***	.46***	.70***	.75***	1

*p<.05, **p<.01, ***p<.001

DI: Deaf Identity, DCP: Deaf Culture Perception, SLP: Sign Language Perception, HI: Hearing Identity, II: Immersion Identity, MI: Marginal Identity, BI: Bicultural Identity

한편 주요 변수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농정체성과 농문화 인식의 관계에서 수어인식의 매개효과

농인의 농정체성과 농문화 인식의 관계에서 수어인식의 매개효과를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다.

먼저 모형1에서는 농정체성(청인중심, 몰입, 주변, 이중문화)이 농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모형이 갖는 설명력은 64.6%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43.49$, $p<.001$).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정체성 중 몰입정체성($B=.489$, $\beta=.216$, $p<.001$)과 이중문화 정체성($B=1.541$, $\beta=.593$, $p<.001$)은 농문화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몰입정체성과 이중문화 정체성 수준이 높을수록 농문화 인식 수준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청인중심 정체성($B=.095$, $\beta=.045$, $p=.235$)과 주변 정체성($B=.049$, $\beta=.023$, $p=.565$)은 농문화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모형2에서는 농정체성(청인중심, 몰입, 주변, 이중문화)이 수어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모형이 갖는 설명력은 55.9%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68.97$, $p<.001$).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인중심 정체성($B=-.177$, $\beta=-.096$, $p<.05$), 몰입정체성($B=.739$, $\beta=.376$, $p<.001$), 이중문화 정체성($B=1.053$, $\beta=.466$, $p<.001$)은 수어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인중심 정체성은 수어인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몰입정체성과 이중문화 정체성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주변정체성($B=.073$, $\beta=.039$, $p=.376$)은 농문화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몰입정체성과 이중문화 정체성 수준이 높을수록 수어인식도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청인중심 정체성이 높을수록 수어인식은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형3에서는 농정체성과 수어인식을 투입하여 농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모형이 갖는 설명력은 70.36%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53.07$, $p<.001$).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개변수인 수어인식은 농문화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416$, $\beta=.362$, $p<.001$), 청인중심 정체성($B=.169$, $\beta=.080$, $p<.05$), 몰입정체성($B=.181$,

$\beta=.080$, $p<.05$), 이중문화 정체성($B=1.103$, $\beta=.424$, $p<.001$)도 농문화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을 통해서 확인되었던 몰입정체성과 이중문화 정체성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1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청인중심 정체성이 매개변수인 수어인식의 영향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몰입정체성과 이중문화 정체성은 모형1에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농문화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수어인식을 거쳐 간접적으로도 농문화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인중심 정체성은 모형1에서는 직접적으로 농문화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어인식을 거쳐 농문화 인식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Mediating Effects of Sign Language Perception in relationship Between Deaf Identity and Deaf Culture Perception

Variables		Model 1 (outcome variable : DCP)		
		B(S.E)	β	t
DI	HI	.095(.080)	.045	1.189
	II	.489(.094)	.216	5.185***
	MI	.049(.085)	.023	.576
	BI	1.541(.099)	.593	15.625***
R-squared		.646		
F		243.49***		
Variables		Model 2 (outcome variable : SLP)		
		B(S.E)	β	t
DI	HI	-.177(.078)	-.096	-2.279*
	II	.739(.091)	.376	8.076***
	MI	.073(.083)	.039	.887
	BI	1.053(.096)	.466	11.004***
R-squared		.559		
F		169.97***		
Variables		Model 3 (outcome variable : DCP)		
		B(S.E)	β	t
DI	HI	.169(.074)	.080	2.292*
	II	.181(.091)	.080	1.983*
	MI	.019(.078)	.009	.238
	BI	1.103(.100)	.424	11.024***
SLP		.416(.041)	.362	10.190***
R-squared		.704		
F		253.07***		

* $p<.05$, ** $p<.01$, *** $p<.001$

DI: Deaf Identity, DCP: Deaf Culture Perception, SLP: Sign Language Perception, HI: Hearing Identity, II: Immersion Identity, MI: Marginal Identity, BI: Bicultural Identity

수어인식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Sobel test를 하였다[21]. 그 결과, 몰입정체성($Z=2.17$, $p<.05$), 이중문화 정체성($Z=7.75$,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인중심 정체성($Z=-1.65$, $p=.10$)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몰입정체성 및 이중문화 정체성과 농문화 인식의 관계에서 수어인식의 매개효과만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농인의 농정체성과 농문화 인식의 관계에서 수어인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인의 농정체성 중 몰입정체성과 이중문화 정체성은 농문화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lickman[16]이 제시한 바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몰입정체성은 농문화를 강조하고, 농인이 옳다고 인식하며, 농인을 중심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인 특징이 있는 것과 같이, 몰입정체성 수준이 높을수록 농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문화 정체성은 몰입정체성과는 달리 농인을 중심으로 인식하지는 않고, 농인과 청인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특징과 같이 이중문화 정체성 수준이 높을수록 농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인이 농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질수록 농인 공동체의 문화적 산물이자 현상인 농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이준우[7], 박동진 외[9], 조용순과 권요한[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농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10]도 고려하면, 농인이 보다 농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농인의 농정체성 중 몰입정체성, 이중문화 정체성, 청인중심 정체성은 수어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입정체성과 이중문화 정체성은 수어인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인중심 정체성은 수어인식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입정체성과 이중문화 정체성이 높을수록 수어인식도 긍정적인 것은 Glickman[16]이 제시한 바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정체성과 수어인식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힌 박동진 외[9], 김혜진[12], 장운영과 정호영[15]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인중심 정체성은 청인을 준거집단으로 두고, 청인과 같이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수어인식에는 부정적인 것이 이론상으로는 설명되는 특징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청인중심 정체성이 높을수록 수어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농인에 대한 병리적인 시각이 여전히 강하고, 청인 중심의 음성언어와 문화가 더 우월하다는 인식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농인들 중 청인중심 정체성 수준이 높은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수어가 한국사회에서 법적으로 공용어로서 인정을 받았고, 과거에 수어사용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사회적 분위기가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이 청인중심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수어인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셋째, 농인의 농정체성 중 몰입정체성, 이중문화 정체성, 청인중심 정체성과 농문화 인식의 관계를 수어인식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obel test를 한 결과, 몰입정체성과 이중문화 정체성과 농문화 인식의 관계에서 수어인식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청인중심 정체성과 농문화 인식의 관계에서 수어인식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인이 몰입정체성과 이중문화 정체성 수준이 높을수록 농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몰입정체성과 이중문화 정체성은 수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또 다시 농문화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Glickman[16], 이준우[7], 박동진 외[9], 김혜진[12], 장운영과 정호영[15]에서와 유사하게 농인의 농정체성, 특히 몰입정체성과 이중문화 정체성이 농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수어인식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몰입정체성과 이중문화 정체성이 농문화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수어인식을 통해서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농정체성이 농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어 수어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농정체성이 수어인식보다 선행하는 영향요인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긍정적인 농문화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농인의 농정체성에 대한 접근과 함께 수어인식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인

식개선과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중문화 정체성과 달리 물입정체성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청인과의 공존보다는 농인 중심의 단독적인 결집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이중문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Fisher[18]도 이중문화 정체성이 가장 긍정적이며, 이상적인 농정체성으로 인식된다고 밝힌 바 있다. 농인이 사회 내에서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농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면서도 청인과의 공존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어교육, 농문화 교육뿐 아니라 청인과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할 수 있도록 농인 및 청인 모두에 대한 상호 문화교육, 관계형성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국수어에 대한 바른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인식개선 활동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수어는 시각-제스처 양식의 언어로서 청각-음성 양식의 언어인 한국어에 기초하지 않는 독립된 언어이다. 이는 법률로도 규정하고 있는 바이다. 농인을 비롯한 대중들이 한국수어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수어교육 등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농인의 농정체성의 네 가지 유형이 농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이들 관계에서 수어인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농인의 수어사용환경 및 농문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보다 초점화된 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농인의 농정체성, 농문화 인식, 수어인식 간의 관계를 횡단적인 시점에서 살펴본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달하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들 변인들에 대한 종단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농정체성과 농문화 인식 간의 종단적인 관계와 이 관계에서 수어인식의 종단적인 매개효과를 살펴본다면 본 연구결과가 가진 한계점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https://www.law.go.kr>, 2022.06.
- [2] Padden, C., and Humphries, T. "Inside Deaf Cul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 [3] Lee, D. S. "Multiple Paradigm of Disability Studies and the Characteristic of Welfare for the Disabled in Korea on the Focus of 'Welfare Law for the Disable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56 No.3, pp.227-251, Sep. 2004.
- [4] Y. J. Eum, J. H. Sohn, J. E. Park, S. J. Sohn, J. S. Eom.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for Korean Version of Deaf Acculturation Scal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66, No.3, pp.55-73, Sep. 2014. DOI: <https://doi.org/10.20970/kasw.2014.66.3.003>
- [5] Rothman J. C. Social Work Practice Across Disability, Pearson Education Inc, 2003.
- [6] Lane, H. "Cultural and infirmity models of Deaf Americans", *Journal of the American Rehabilitation Association*, No.28, pp.11-26, 1990.
- [7] J. W.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af Identity and Psychosocial Functions of Korean Deaf Adolescent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Vol.4, No.4, pp.173-204, Dec. 2003.
- [8] Yonaiyama, Y., Kimura H, Ichida, Y. Understanding for Deaf Culture, Institute for Information of Deaf Community, 2002.
- [9] D. J. Park, J. H. Choi, J. W. Lee.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Deaf Identity Formation Process of Deaf Youth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Vol.13, No.3, pp.155-183, 2012.
- [10] Y. S. Cho, Y. H. Kwon. The Relationship among Attitudes towards Deaf Culture,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eafnes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Vol.11, No.1, pp.263-284, 2009.
- [11] S. H. Kwon. "The Study on the Deaf student's Bi-Lingual Preference and Attitude to Deaf Culture", *Communication and Disorder*, Vol.27, No.1, pp.19-38, 2004.
- [12] H. J. Kim. A Deaf People's Perspective on Deaf Identity, *The stud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Vol.12, No.3, pp.47-65, Dec. 2021. DOI: <https://doi.org/10.24009/ksehli.2021.12.3.003>
- [13] Y. M. Lee, J. S. Lee. "A study on Life Adaptation Process of Married Immigrant Women with Hearing Impairment in Korea", *Gender and Society*, No.31, pp.61-87, 2020. DOI: <https://doi.org/10.47949/gas.2020.31.003>
- [14] M. O. Kim, M. S. Lee.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Communication Experiences of the Deaf",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65, No.2, May, pp.155-177, 2013. DOI: <https://doi.org/10.20970/kasw.2013.65.2.007>
- [15] Y. Y. Jang, H. Y. Jung. "A Qualitative study on the life of the deaf as the minority group",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Vol.11, No.4, pp.515-543, Dec. 2010.
- [16] Glickman, N. S., *Deaf identity development: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theoretical model*,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Unitee 1993.

- [17] Sue, D. W. & Sue, D. Counseling the culturally different: Theory and practice(3rd ed), John Wiley & Sons, 1999.
- [18] Fischer, L. C. *Cultural identity development and self concept of adults who are deaf: A comparative analysis*, Ph.D dissertation, Arizona State University. United States of America, 2000.
- [19]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20 Korean Sign Language Utilization Survey, Seoul: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20.
- [20] Baron. R. M.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Jul.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21] Sobel. M. E.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No.13, pp.290-312, Nov. 1982.
DOI: <https://doi.org/10.2307/270723>
- [22] Kline. R. B.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dford Press, 2015.

박 동 진(Dong-Jin Park)

[정회원]



• 2022년 3월 ~ 현재 : 경기복지재단
복지협력팀 연구위원

〈관심분야〉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사회복지실천

남 기 현(Ki-Hyun Nam)

[정회원]



• 2021년 3월 ~ 현재 : 나사렛대학교
수어통역교육전공 조교수

〈관심분야〉

한국수어언어학, 한국수어교육, 수어통역